

## 울림을 마무리하며

14학번 김정은

안녕하세요. 16번째 제주소피아 ‘울림’ 편집을 맡은 14학번 김정은입니다. 처음 편집을 맡았을 때에는 교수님을 찾아뵙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우여러분께 글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글들을 편집하는 것 까지 전부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라 걱정이 많았었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에 이렇게 제주소피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번째 제주소피아를 편집 하면서, 철학과의 한 해를 완성시켜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주소피아의, 철학과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모든 학우여러분과 교수님, 조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겼다.

-도스토예프스키

대화를 제대로 나누어보지도 않은 채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오해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위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편협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울림’의 맞추어 ‘공명’하는 방법을 알아 가셨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16번째 제주소피아 ‘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